

석유화학 퇴직인력 조력자로 “위촉”

울산시, 경력자 활용사업 ... 합성수지 재활용기술 포함 20개과제 컨설팅

석유화학 분야의 퇴직인력이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 컨설팅에 나선다.

울산시는 2009년부터 초빙한 석유화학 분야 전문경력인사를 중소기업 애로기술 컨설팅에 집중 투입할 계획이다.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의 고경력 기술인 활용사업과 연계해 지역의 전문경력인들이 중소기업 애로기술을 직접 컨설팅하는 사업에 9월15일 착수했다.

이에 따라 울산시가 초빙한 52명의 전문경력인사가 중소기업이 어려움을 호소하는 합성수지 폐기물 건조 신기술 정보, 고농축 냉각시스템 보호제 및 프로그램 개발 등 20여개의 과제 해결에 직접 참여할 예정이다.

울산시는 2009년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최초로 전문경력인사 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지역 석유화학기업에서 임원으로 일했던 퇴직인사들을 화학산업 발전정책 수립과 중소 화학업체의 조력자로 위촉했다.

퇴직인사들은 정부의 그린화학생태망 구축사업과 울산시의 석유화학산업 발전 로드맵 수립, 화학산업 연구개발계획 수립 등에 참여하는 것은 물론 지역 화학기업에 노하우를 전수하고 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10/09/15>